

“융복합 농업기술 위해 힘 모을 것”

농진청, 농학계 대학장 학과장 공동 워크숍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4일 대전광역시 호텔인터티에서 미래 융복합 농업 연구 개발을 위한 학연 협력과 인력 양성을 주제로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이하 농대협),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이하 농과학협)와 워크숍(공동 연수)을 가졌다.

최근 농업분야에서도 디지털 농업(Digital Innovation)과 바이오농업(Bio Technology) 전환에 따른 융복합 연구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농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농업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학문의 융복합 교류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융복합 미래 농업 연구 사례로 ‘그린바이오 기반 융복합 실용화 기술 개발’(농촌진흥청 이시명 연구관) △지반농업 연구 개발 강화 방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농촌진흥청 강석진 연구관) 사업과 지방 농과계 대학의 ‘신학연 협력단’ 참여의 중요성을 전했다.

미래 융·복합 농업 R&D 협력 강화 워크숍

▶ 일시 : 2019. 11. 14.(목) 14:30~18:00 ▶ 공동주최 : 농촌진흥청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14일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티에서 열린 2019 농진청-농대협-농과학 공동 워크숍에서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과협의 서울대학교 강병철 교수는 ‘미래농업 연구 개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농대협의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는 ‘농업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경미 연구

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미래상 정립과 융복합, 농업과학 기술 실현과 기술혁신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가 농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 등 축산물 뽀뽀 나눔 행사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농협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와 함께 14일 남원시 소재 사랑의 열매 봉사단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축산물 뽀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 축산 행사는 전북지리산 낙농농협 임직원들이 노인·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봉사단에 5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북지리산낙농협 이안기 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축산물 나눔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으로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여 2018년에는 47.1%차졌으며, 여자는 2000년 66.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52.9% 차지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된 거처는 단독주택으로 2000년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은 제주(73.2%), 세종(67.5%), 충남(66.3%) 전북(52.5%), 부산(52.8%), 대구(54.3%) 순으로, 1인 가구 고용률은 전북이 52.5%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다은 기자

지난해 전북도내 1인가구 30% 돌파

31.7%로 2015년보다 1.9% ↑... 2045년에는 39.1% 전망

전라북도의 1인가구 수는 2000년도 17.4%에서 2018년도 31.7%로 122.0%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북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1인 가구 특성변화’에 따르면 전북의 1인 가구는 2015년도 29.8%로 일반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2018년도에는 31.7%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 2018년도 1인 가구 수는 전주 7만6천 여 가구로 가장 높았고 익산이 3만8천여 가구, 군산이 3만3천 여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1인가구 수 증가율은 전주가 2000년 2만 4059가구에서 2018년 7만 6562가구로 218.2% 대폭 증가한 반면 순창은 2000년 2,985가구에서 2018년 3,813가구로 27.7% 가장 낮게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0년 남자 1인 가구 비율이 33.8%에서 점차 증가하

전북농협, 한돈 안전성 홍보·소비촉진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급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간 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참여우명품관 앞에서 한돈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더불어 삼겹살 100g당 1420원, 목살 100g당 1300원 등 총 1000kg을 3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도청 이종환 동물방역 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하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돼지고기만 공급되고 있어 안심하고 믿고 먹어도 된다”며 “전북도에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돼지



고기 안전성 홍보와 함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혼부부에게 걸맞는 ‘새 집’

완주삼봉 A-2블록 희망타운 546세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29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5·59㎡ 546세대(총820세대) 규모의 신혼부부 전용 주거 단지로 타입별로는 55㎡ 146세대, 59㎡ 40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 없이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육아관련 특화시설을 마련하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어들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은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며 전용 55㎡(3.3㎡기준

23py), 전용 59㎡(3.3㎡기준 25py)로 설계되어 다른지역 신혼희망타운에 비해 넓은 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완주삼봉지구는 전주와 익산 인접지역으로 교통이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 인근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사업지구 내에 공립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가 있는 등 접근성 및 정주여건이 양호하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A-2블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홍보관 <http://www.lhsambong-a2.co.kr>과 <http://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오는 29일 개관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중기 조달교육 협력 추진

중기중앙회-조달청, 교육 콘텐츠 등 공유키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교육 콘텐츠 및 시설과 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6일에 체결한 중앙회와 조달청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와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교육분야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실현한 것으로, 조달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교수진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중소기업 교육연수 지원 서비스와 콜라보레이션 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교육운영 방식이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과 조달교육원은 14일에 중소기업 조달교육 지원 협력 조인식을 갖고 오는 25~26일에 (다수 공급자 계약(MAS) 실무와 조달혁신정책 및 제도) 등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20년부터는 연 2~4회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조달우수제품 과정 등 조달제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이태희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 공공조달의 중요성으로 볼 때 조달교육원과의 협력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며, “특히 본 교육을 이수한 업체들에게 조달청에서 부여하는 계약 이행실적평가 가점(2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교육원 홍순후 원장도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7%에 해당하는 공공구매 시장에 많은 창업·벤처 중소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꾸준히 마련하는 중”이라 하며 “특별히 향후 중기중앙회와 협력·추진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례화된 교육일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할 생각”이라 밝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